



# 수능 50일 앞… 실전 적응력 높여라

상위권 수험생, 난이도 높은 문제 대비

취약단원 보충 땐 새 교재보다 반복학습

2012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능은 영역·과목별로 민첩자 1%의 쉬운 수능기준을 유지하면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1~2문항은 난이도 중·상의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며 “고득점을 원하는 수험생은 난이도 높은 문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마무리 학습에서 취약단원을 보충할 때 새 교재로 학습하기보다

평소에 반복해서 봤던 익숙한 교재를 활용해야 하며, 10월말~11월 초까지는 수능 당일 시간표에 맞춰 생활하는 등 최종 리허설을 하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해야 한다. 입시전문기관이 추천하는 마무리 학습법을 소개한다.

◇ 단계별 학습 전략 필요=1단계(9월21일~10월10일) 시기에는 그동안 봤던 모의수능 결과를 통해 파악한 취약 단원을 마지막으로 보강하고 기본 개념을 다지는 것이 좋다. 취약

단원을 보충할 때 새 교재로 학습하기보다 평소에 반복해서 봤던 익숙한 교재로 해야 한다.

EBS는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파이널 교재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다만 실제 수능에서는 문제, 자문, 유형이 EBS 교재와 같아도 문제 유형이 다르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문제, 정답을 위우기보다 내용을 이해하며 문제를 풀어야 한다.

2단계(10월11일~30일) 시기는 수능에 대한 실전 적응력을 높이도록 파이널 정리 문제를 풀어야 한다. 문제풀이는 양보다 질로 승부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

3단계(10월31일~11월9일) 시기

는 몸과 마음을 11월10일 수능시험일에 최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적응시키는 기간이다. 실제 수능을 치르는 기분으로 수능 당일 시간표에 맞춰 생활하며 수능 리허설을 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는 것이 좋다.

영역별로 최종 정리를 할 때 단원 내용과 문제를 아는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해당 내용만 가볍게 확인한다.

◇ 난이도 높은 문제도 대비해야=언어 영역의 경우 상위권 수험생의 변별력을 감안해 제재 별로 고난도 문항을 안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위권은 1~2등급의 변별력으로 작용하는 고난도 문항, 자문에 대비해야 한다.

상위권은 수능에서 자주 틀리는 문항 유형이 정형화돼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신이 취약한 유형에 대해 보충·심화학습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하위권 학생은 80분 안에 언어영역 50문항을 완벽하게 풀어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일주일에 한 번은 실제 수능과 같은 조건에서 50문항을 풀어보는 등 실전 형식의 훈련을 통해서 문제풀이 감각을 익혀야 한다.

수리영역의 경우 상위권은 EBS 교재 연계 여부와 상관없이 고난도로 출제된 몇 개 문항에 의해 성적이 결정되거나 때문에 변별력 높은 고난도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동신대학교의 날’ 기아타이거즈 응원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는 18일 오후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동신대학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및 학생 등 2000여명이 참여해 결속을 다지고, 2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기아타이거즈를 응원했다.

(동신대 제공)

## 전남대 여성 ROTC 2기 5명 선발… 총 10명

전남대학교 학군단(단장 하성수 대령)이 최근 여성 학군사관후보생(ROTC) 2기를 선발함에 따라 총 10명의 여성 후보생을 확보했다. 광주·전남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확보하게 된 것.

학군단은 김민진(20·체육교육학과), 조서영(22·응용생물공학부), 강석영(21·독일언어문화학과), 김지인(21·철학과), 최희영(20·중어중문학

과) 등 5명을 여성 ROTC 2기로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7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서 뛰어난 학업·인성·검사·면접평가, 체력검정 등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됐다. 특히 김지인 학생은 친오빠인 김원호 학생(ROTC 51기)에 이어 ROTC 52기로 입단함에 따라 전남대 첫 남매ROTC가 탄생해 화제가 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대 경영대학 ‘우전 양진석 홀’ 개관

전남대 경영대학(학장 정용기)이 최근 신모델 강의실 ‘우전 양진석 홀’을 개관했다.

경영대학 1호관 2층에 위치한 이 강의실은 총 1억3000여만원을 들여 기존 강의실을 전면 리모델링한 것으로 최신 교육기기재를 구비했으며, 토큰식 수업·프레젠테이션·팀프로젝트 학습 및 발표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구조를 갖췄다.

특히 이 강의실은 모교에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있는 양진석 서울총동창회장(75·상학과 1969년 졸업)의 이름을 따 ‘우전 양진석 홀’로 명명했다. 양진석 회장은 지난해 대학에 발전기금 10억원을 헌금해 화제를 모았으며, 경영대학 60주년을 기념해 모교와 후배를 사랑하는 동문들의 마음을 모아 희망탑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경영대학은 16일 오전 양진석 회장을 비롯해 김윤수 총장, 단과대학 학(원)장 등 교직원과 동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양진석 회장은 “후배들이 보다 좋은 교육 환경에서 꿈과 열정을 갖고 끊임없이 도전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용기 경영대학장은 “선배의 큰 뜻을 담은 강의실이 대학과 지역,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조대여고 RCY ‘아름다운 선행’

### 요양시설 찾아 봉사활동·생필품 전달

조대여고(교장 국석표) RCY 학생들이 전문요양시설과 장애시설을 찾아 주기적인 봉사를 하고 있다.

이들 RCY 학생들은 시내 읍면 실버빌요양원, 전혜경노원, 귀일정신요양원, 한사랑실버터운, 효경실비빌요양원, 이일성노원 등 6개 기관과 결연해 1·2학년 186명이 14팀으로 나누어 매달 두째, 네째주 토요일마다 주기적으로 찾아감 등을 주고 있다.

취약계층 노인들을 정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변 청소 및 정리

리기, 홀체어 태워 주변경관 산책 및 말벗 되어 드리기, 각종 종이접기, 색칠공부 도와드리기 등의 관계 형성을 통해 좀 더 친숙한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둘째주 용연실버빌을 찾은 1팀(팀장 강선아) 10명의 학생들은 식사보조 및 노인들 안마해 드리기, 홀체어 태워드리기 등 도우미 역할을 합한 물론 명절을 맞아 각자 응원으로 정성껏 마련한 치약, 치솔 등 생필품 1박스를 전달해 귀감이 되고 있다.

김병학 RCY 지도교사는 “봉사는 우리 주변 이웃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조그마한 실천에서 비롯되며 청소년 시기부터 체질화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힘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조선대 건축학부 내일부터 디자인공모 전시회

조선대 건축학부(학부장 김의식)는 ‘제4회 친환경건축디자인 공모전’ 광주전시회를 21일부터 26일까지 제1공학관 11층 건축학부 전시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광주전시회에서는 올해 ‘제에너지 그린 오피스 빌딩’을 주제로 건축 관련 학생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오피스 설계에 대한 창의적인 설계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500여 개의 작품들이 출품되었으며 총 6차례에 걸친 심사와 토의를 거쳐 입상작을 결정했다.

한국그린빌딩협의회·한국건축환경설비학회·한국건축

학회·바이오하우징연구사업

단 공동 주최로 열리는 ‘친환경건축디자인 공모전’은 올해 ‘제에너지 그린 오피스 빌딩’을 주제로

건축 관련 학생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오피스 설계에 대한

창의적인 설계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 광주전시회에서는 올해 ‘제에너지 그린 오피스 빌딩’을 주제로 열리는 ‘친환경건축디자인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 115점이 선보인다.

한국그린빌딩협의회·한국건축환경설비학회·한국건축

##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5일까지 인문주간 행사

(21일 오후 2시~4시, 전남대 컨벤션홀) ▲남도풍류의 현재적 의미를 찾다 : 표인주 전남대 교수

(22일 오후 2시~4시, 전남대 컨벤션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23일에는 ‘소리와 빛으로 만나는 남도’를 주제로 광주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판소리 공연 및 영화 ‘천년학’ 상영이 이어지고, 24일에는 서을 하자센터 이야기꾼 책공연 팀이 진행하는 ‘종이 봉지 공주 이야기’(오후 2시~5시, 광주 청소년문화의집 디렉셔널) 공연과 남도 풍류문화 탐방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다.

올해 인문주간의 주제는 ‘삶의 지혜와 행복찾기’이며, 광주지역은 호남학연구원·감성인문학연구단이 ‘남도의 풍류로 만나는 삶의 행복’이라는 콘셉트로 행사를 기획·진행한다.

강연은 ▲한 폭의 서화를 품는 마음: 이선우 전남대 교수(20일 오후 2시~4시, 광주여성발전센터 2층 강당) ▲남도 치문화와 풍류의 정신: 강진 백련사 여연스님

## 동신대 재학생 7명 대한항공 승무원 최종 합격

동신대 스튜어디스학과 재학생 7명이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최종 합격했다.

동신대 스튜어디스학과는 지난해 졸업자 가운데 2명이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 4명, 아시아나 국제선 승무원 1명, 항공사 지상직원 5명 등 절반 가량이 항공 관련 전문직으로 진출한데 이어 올 들어 이미 7명의 승무원과 2명의 항공사 지상직원을 배출하게 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동신대 스튜어디스학과는 올해 반기 대학원생 10명을 배출하면서 승무원의 산실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됐다.

동신대 스튜어디스학과는 지난해 졸업자 가운데 2명이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 4명, 아시아나 국제선 승무원 1명, 항공사 지상직원 5명 등 절반 가량이 항공 관련 전문직으로 진출한데 이어 올 들어 이미 7명의 승무원과 2명의 항공사 지상직원을 배출하게 돼 주목을 끌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상무랜드공인중개사

### 건 물(매매)

■ 토지 600평 건물 4,000평 매가 210억

보증금 100억/월세 15,000만원

■ 토지 60평 건물 100평 매가 110억

액보증금 40억/월세 1,000만원

■ 토지 200평 건물 725평 매매가 33억

보증금 6억/월세 1,700만원

■ 토지 164평 건물 600평 매매가 210억

보증금 6억/월세 1,700만원

### 토지 매매

#### 토지

■ 토지 164평 매매가 210억

보증금 6억/월세 1,700만원

■ 토지 164평 매매가 210억

보증금 6억/월세 1,700만원